

# 2014년 5월 헌미헌금봉헌의 달 관련 참고자료

## 1. 현재 지구촌의 모습

1) 요즘 TV와 신문 등을 보면 심심치 않게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모두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에 눈물이 나곤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2) 20세기 이후 세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통이 발달하면서 외국 여행도 무척 쉬워졌습니다. 15C 콜럼버스가 우여곡절 끝에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는 데 무려 두 달이 걸렸지만, 지금은 그보다 2배나 먼 미국과 캐나다도 하루면 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가까워진 요즘, 이런 이유로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3) 이렇게 세계가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옛날보다 다른 나라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여러 가지 슈퍼 바이러스나 질병을 보아도 아마 옛날이었으면 그렇게 급속하게 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미국에 있던 사람이 오늘 우리나라에 오고, 또 며칠 후에 동남아시아로 가는 등 이동이 빨라지면서 빠르게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와 상관없다고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세계 모든 나라가 힘을 합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구촌 문제라고 합니다.

4) 하지만 이러한 첨단 시대에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집이 없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매년 유엔에서 발행하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3-2014)에 의하면 하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약 12억 명으로 이들은 극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고, 5세 미만 아동들 중 1억 1백만 명이 저체중 상태로 집계되었으며, 2011년 기준으로 일일 1만 9천명, 연 690만 명, 22초당 1명의 아동들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책을 읽으며 지식을 얻고 글을 써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 세계의 미취학 아동의 수가 5백 7십만 명이나 되며, 전 세계에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문맹입니다. 문맹이 되는 건 가난해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떤 나라에선 종교적, 사회적 이유로 여성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1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1억 3천 7백만 명의 청소년 중에서 3천 4백만 명이 초등학교 졸업 전 중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난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해 문맹이 되고, 문맹이라서 좋은 직업을 얻지 못해 더 가난해지는 일이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 2. 그들은 왜 그토록 가난할까?

1)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 평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과 비교하면 전쟁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평화롭다고 생각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예전에는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민족, 종교, 인종, 자원 문제로 인한 갈등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시리아, 수단 등 한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또한 민족 간, 종교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테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테러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사회가 더욱 불안해 지기도 합니다.

전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아동들이 소년병으로 전쟁에 참여해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전쟁 후에도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이나 도로가 부서져 경제적인 피해도 생기고, 전쟁에 사용된 무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오염되기도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파괴된 지역을 다시 재건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인해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게 됩니다.

3) 또한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구 온난화, 사막화, 오존층 파괴와 같은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과 공장 굴뚝의 연기 때문에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지구의 기온이 올라감으로 인해 빙하가 녹아 바다 표면의 높이가 높아져 태평양의 작은 섬들이 사라지고, 태풍, 쓰나미와 같은 기상 이변이 일어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먹을 물도 부족해지고 사막화가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마존 강 유역의 열대우림 지역은 '생태계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 동식물의 절반인 200만 종이 서식하며 전 세계 삼림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 세계 산소량의 20%를 공급하기 때문에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열대우림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열대우림 지역의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내기 위해서 나무를 베기도 하고, 나무를 모두 베어버린 후 도시를 건설하는 곳도 있으며, 사람들의 육류 위주 식단으로 인하여 소를 키우기 위해 밀림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어낸 나무를 파는 경우도 많고,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 대량으로 베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열대우림의 반 이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열대우림 지역이 점차 사라진다면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잃게 되고, 생물뿐만 아니라 대대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던 원주민들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결국 도시의 빈민으로 살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4) 다이어트를 하느라 일부러 끼니를 굶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생명을 잃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빈부 격차는 한 나라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부유한 나라들은 주로 지구의 적도 위쪽 북반구에, 가난하고 개발이 늦은 나라들은 지구의 적도 아래 남반구에 많이 있어서 나라들 간의 경제적 차이가 커지는 걸 남북문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반구의 많은 나라들이 가난한 이유는 과거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자원을 빼앗기고, 강대국에서 만든 물건을 비싸게 사야 했습니다. 지배를 하는 강대국들이 점점 부자가 되어 가는 동안, 식민지 나라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독립을 한 이후에도 기술이 뒤떨어져 있어서 강대국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간 빈부 격차

의 문제에 대해 한때 식민지 지배를 했던 선진국들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빈부 격차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심지어 굶어서 생명을 잃는 아이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아이를 기를 능력이 없는 부모들이 갓난아기를 길에 버리는 무서운 일도 종종 일어나며, 또 돈이 없어 학교에도 못 다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굶주리는 아이들 가운데 약 20% 정도가 다섯 살이 되기 전에 사망하며 살아남은 아이들조차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 질병에 쉽게 노출되며 병원이나 의사가 없는 데다 간단한 약도 없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3.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1) 교회는 가난하고, 고통 받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랑 실천을 핵심적인 신앙실천행위로 강조해 왔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은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대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69항)라는 교부들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빈곤의 경우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으며,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 쓰고 남은 것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백주년 36항). 또한 어느 나라도 재화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민족들의 발전 48항)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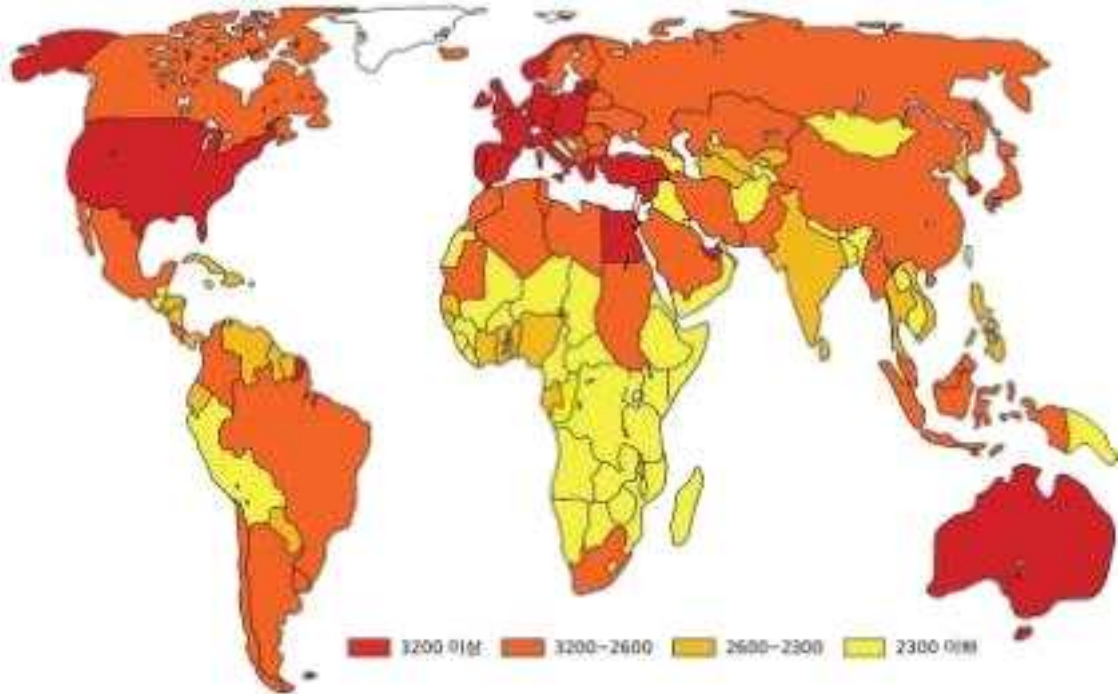
2) 이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창조된 세계의 모든 재화는 만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며, 인간은 임시 관리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3) 마더 데레사는 일찍이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우리가 가진 바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못 나누느냐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1996년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 식량정상회담 개막식에서 “풍요 속에 살고 있는 이가 있는 반면, 굶주리는 자가 있는 세계의 빈부격차는 용인될 수 없다.(중략) 다시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풍요로운 사람들 옆에 존재하고, 기본적인 필수품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껏 소비하는 사람들과 공존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모든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는 가난한 이들이 사회에 온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가난한 이들의 해방과 진보를 위한 하느님의 도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귀담아 잘 들어주고 그들을 도와 주어야 하며,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주어라.”(마르 6,37) 하신 명령은 빈곤의 구조적 원인을 없애고 가난한 이들의 온전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일하라는 의미라고 말씀하십니다.(복음의 기쁨 187, 188항)

#### 4.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1인당 1일 칼로리 섭취 상태

1) 위의 세계지도는 각 나라마다 1인당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를 색깔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칼로리'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최소한 2,3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해야 하는데, 여기에 맞추어 식단을 짜고 다이어트 수준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의 세계지도에 나타난 칼로리 구분은 건강을 위해 식단을 짜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색깔의 구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각 나라마다 1인당 하루에 섭취하고 있는 칼로리의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하루에 필요한 2,3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하고 있는 나라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최소한인 2,300칼로리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아프리카 대륙의 대부분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부분의 지역, 오세아니아와 동아시아 지역 등은 2,300칼로리보다 훨씬 더 많은 2,600~3,200칼로리 정도의 양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역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빈부의 격차를 잘 드러내는 예라 하겠습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음식의 양을 조절해 가며 칼로리를 계산하지만,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경우는 그야말로 살기 위해 1칼로리라도 더 섭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라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서도 대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2) 여러분이 과자 한 봉지를 사는 데 쓰는 3,000원 정도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 한 명에게 최소한의 칼로리를 채울 수 있는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루 100원, 한 달 3,000원이 큰돈이 아닐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칼로리를 채울 수 있는 소중한 큰돈입니다. 우리부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야 하는 지구촌 문제로 인식하고,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귀담아 잘 들어주고 그들을 도와줄 때 모두가 최소한의 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3)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라는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창조물의 주인은 하느님 이시다"는 고백을 통해서 만물은 하느님 안에서 일체(一體)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모든 가난한 나라와 민족들이 바로 우리 형제인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이웃과 나누고 '하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길은 매일 같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도는 우리 존재의 이유를 밝혀주며 세상의 존재원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매일 매일 이웃을 위한 작은 나눔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은 나눔을 매일 실천할 수 있습니까? 성체성사의 정신을 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식탁에서 빵의 나눔을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도 가정에서 식탁을 마련할 때 이웃을 위해 한 줌의 쌀을 떼어놓는 행위를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헌미헌금운동입니다.

5) 헌미헌금 운동은 일용할 양식의 나눔운동입니다. 한 줌의 쌀로 "밥"을 나누는 것은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선조들은 매 끼니 때마다 쌀 한 줌씩을 떼어 굶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백여 년에 걸친 박해를 거치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양식 걱정을 하지 않고 지낸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밥을 짓기 전에 이웃을 생각하며 하느님께 봉헌할 쌀 한 줌씩을 떼어 놓았습니다. 이유는 도움을 받아야 할 다급한 이웃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다급한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많은 이웃들이 조직화된 구조 때문에, 또 떨어져 있는 거리 때문에,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 방법을 몰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며, 이에 따라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사실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6) 하느님께서서는 법보다 인간의 사랑이 먼저라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조건없이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조건없이 사랑하고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눔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인색한 것이 아니라 나눔에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고, 높은 이상이 있더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떼어 놓는 한 줌의 쌀이야 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7) 이제 우리는 이웃을 향해 더 멀리 더 깊이 더 섬세히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리시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생각하며 하느님께 봉헌할 쌀 한 줌 떼어놓는 마음입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 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하루 세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웃을 생각하며 하느님께 쌀 한 줌 떼어놓는 믿음과 감사의 행위를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봉헌한 헌미(헌금)는 이웃에게 흘러가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달아 버리면, 하느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1요한 3,17)

## 2014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개발협력 교육사업' 현황

사업국	사업명	사업내용 요약
캄보디아 (Cambodia)	여성의 자립과 지역사회 개발	캄보디아 프레이벵(Prey Veng) 참(Cham) 공동체의 역량강화 ① 기술교육 및 훈련을 통한 농촌여성의 사회활동 촉진 ② 빈곤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 교육을 통한 문맹률 감소 ③ 지역사회 리더십 강화
	지체장애인 자립 프로그램 (KOICA 지원사업)	장애인들에게 농업, 목공예, 전자, 기계, 재봉, 창업 등에 대한 기술교육 제공, 사회적응을 돕는 공동체 생활 지원 및 후속관 리 프로그램 지원
미얀마 (Myanma)	피냐산애(Pyina Sanyae) 교육기관의 교사훈련 프로그램	9개월간의 훈련으로 전문교사를 양성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원
	기숙사 학생 생계지원	학교를 다니기 힘든 아이들에게 기숙사 제공 및 생계 지원을 통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지원
파키스탄 (Pakistan)	파키스탄 펀치(Poonch) 지역 내 직업기술 및 농업훈련을 통한 여성 자력화	여성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 교육(재봉, 재단, 전통자수 및 기계 자수 등)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지원
몽골 (Mongolia)	울란바타르(Ulaanbaatar)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KOICA 지원사업)	울란바타르 지역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운영, 다양한 언어 교 육 및 지구시민연대교육 실시, 여대생 기숙사 제공 및 다양한 청소년 교육 활동 지원 프로그램 지원
방글라데시 (Bangladesh)	학교 및 기숙사 보수 지원	마이멘싱(Mymensingh) 지역의 낡은 학교 건물을 보수하여 아 이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아이티 (Haiti)	아이티 지진피해지역 학교 개건 사업	아이티 대지진 피해로 붕괴된 10개 학교 건축 및 건축된 학교 의 교구 및 기자재 지원